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현황

- 2022년 3월 통계프리즘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변화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매월 생산하는 통계자료로 사업체의 종사자 수, 빈일자리, 노동이동, 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산업 유형별 고용상황과 근로시간, 임금상승률 등에 관한 지표를 제공함.
 - 이에 본고는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월 평균 근로시간을 주 평균 근로시간으로 환산하고, 이를 종사상 지위 및 사업체의 규모, 산업 등으로 구분하여 그 시계열 추이와 분포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음.

〈표 1〉 1인당 근로일수 및 월 평균 근로시간 변화 추이

(단위: 일, 시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근로일수	20.1	20.0	20.0	19.7	19.8	19.6
전년대비 증감	-0.3	-0.1	0.0	-0.3	0.1	-0.2
증감률	-1.5	-0.5	0.0	-1.5	0.5	-1.0
월 평균 근로시간	166.3	163.9	163.1	160.6	160.7	158.7
전년대비 증감	-3.1	-2.4	-0.8	-2.5	0.1	-2.0
증감률	-1.8	-1.4	-0.5	-1.5	0.1	-1.2
[2017=100]	100.0	98.6	98.1	96.6	96.6	95.4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 각 연도.

- 먼저, 2017~2022년 기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일수 및 전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근로시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해당 기간 조사대상 사업체의 월 단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월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2017~2022년 기간 중 2021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0.5~-1.2%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음.

- 가장 최근인 2022년 1인당 월 평균 근로시간은 158.7시간으로 전년대비 2.0시간(-1.2%) 감소하였으며, 2017년(=100) 기준으로는 95.4% 수준에 이르고 있음.

〈표 2〉 1인당 주당 근로일수 및 주 평균 근로시간 변화 추이

(단위: 일, 시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근로일수	4.63	4.60	4.59	4.54	4.55	4.50
전년대비 증감	-	-0.03	-0.01	-0.05	0.01	-0.05
증감률	-	-0.6	-0.2	-1.1	0.2	-1.1
주 평균 근로시간	38.3	37.7	37.6	36.9	37.0	36.5
전년대비 증감	-	-0.6	-0.1	-0.7	0.1	-0.5
증감률	-	-1.4	-0.5	-1.6	0.0	-1.2
[2017=100]	100.0	98.6	98.2	96.6	96.6	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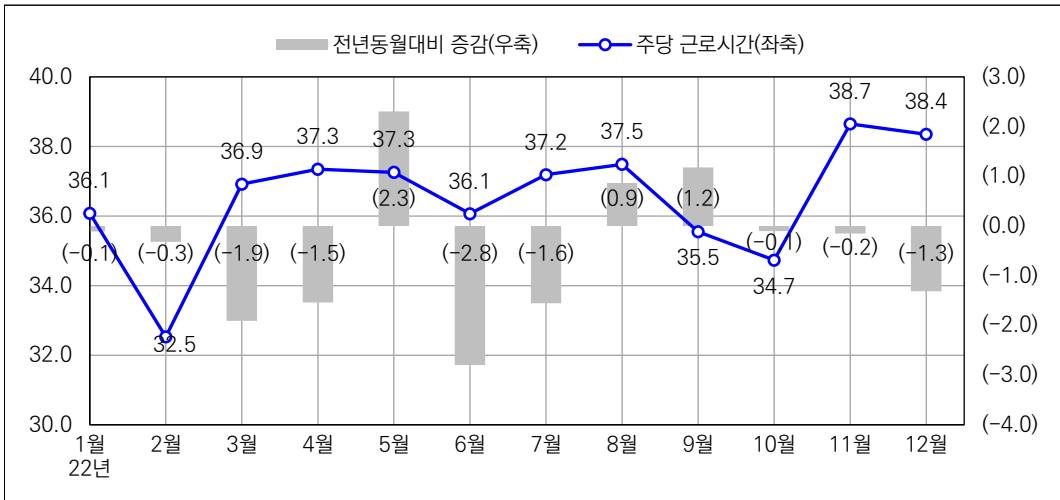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 각 연도.

○ 〈표 1〉의 월 평균 근로시간 통계를 주 단위로 변환한 수치는 다음과 같음.

- ※ 주 평균 근로시간은 1개월을 4.345주로 그 적정성 여부에 따라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 2022년(1~12월 누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주 근로시간은 36.5시간으로 전년대비 0.5시간(-1.2%) 감소하였음.

〈그림 1〉 2022년 월별 1인당 주당 근로일수 및 주 평균 근로시간 변화 추이

(단위: 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최근의 근로시간 변화 추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의 월별 주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2022년 5월과 8월, 9월을 제외하고는 전년동월대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가장 최근 공표된 2022년 1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근로시간은 38.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3시간 감소하였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20.6일로 전년동월대비 0.7일 감소하였음.

〈표 3〉 종사상지위별 주당 근로일수 및 주 평균 근로시간 변화 추이

(단위: 일, 시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상용직						
주당 근로일수	4.78	4.76	4.76	4.69	4.70	4.66
주당 총근로시간	39.9	39.4	39.2	38.4	38.4	38.0
[2017=100]	[100.0]	[98.8]	[98.4]	[96.4]	[96.4]	[95.4]
전년대비 증감률		(-1.2)	(-0.5)	(-2.0)	(-0.1)	(-1.0)
임시일용						
주당 근로일수	3.31	3.13	3.05	3.05	3.08	3.06
주당 근로시간	24.1	22.7	22.1	22.5	22.8	22.6
[2017=100]	[100.0]	[94.0]	[91.6]	[93.5]	[94.6]	[94.1]
전년대비 증감률		(-6.0)	(-2.6)	(2.1)	(1.2)	(-0.5)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주당 근로시간이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2년 기준으로는 상용직의 1인당 근로시간이 주당 38.0시간으로 전년대비 0.4시간(-1.0%) 감소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22.6시간으로 전년대비 0.2시간(-0.5%) 감소하였음.
 -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 기준으로는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이 38.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5시간(-6.1%) 감소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22.9시간으로 0.5시간(-2.1%)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받는데, 2022년 12월은 월력상 근로일수가 21.3일로 전년보다 0.7일 감소한 영향과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근로시간 감소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짧은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 등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표 4〉 사업체규모별 주당 근로일수 및 주 평균 근로시간 변화 추이

(단위: 시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300인 미만	38.4	37.8	37.5	36.9	36.9	36.5
1~9인	37.0	36.4	36.1	35.3	35.4	35.0
10~99인	39.1	38.5	38.3	37.9	37.9	37.3
100~299인	39.7	39.2	39.0	38.2	38.4	38.1
300인 이상	37.8	37.6	37.8	37.5	37.4	36.9
전 체	38.3	37.7	37.6	36.9	37.0	36.5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사업체규모별로는 2022년 기준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이 주당 36.5시간으로 전년대비 0.4시간(-1.3%) 감소하였으며, 상용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36.9시간으로 0.5시간(-1.2%) 감소하였음.

- 한편,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 기준 근로시간은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근로시간은 38.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4시간(-3.5%) 감소한 반면, 상용 300인 이상은 38.4시간으로 1.2시간(-3.1%) 감소하였음.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운수 및 창고업 등과 같은 산업의 영향이 발현된 것으로 보임.

〈표 5〉 산업별 주당 근로일수 및 주 평균 근로시간 변화 추이

(단위: 시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 체	38.3	37.7	37.6	36.9	37.0	36.5
광업	40.6	40.8	40.6	42.0	41.7	40.6
제조업	41.4	40.8	40.5	39.7	40.0	39.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8.0	37.3	37.0	37.7	37.2	36.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40.8	40.9	41.1	40.8	40.8	40.2
건설업	32.7	31.9	31.4	31.5	31.3	30.9
도매 및 소매업	38.5	38.0	38.1	37.7	37.7	37.3
운수 및 창고업	39.0	38.3	37.8	36.6	36.9	37.0
숙박 및 음식점업	36.9	36.8	36.5	34.4	34.1	33.7
정보통신업	37.0	37.2	37.7	37.7	37.8	37.4
금융 및 보험업	36.9	37.0	37.2	37.3	37.3	36.8
부동산업	42.6	41.2	40.6	39.9	39.5	39.0

〈표 5〉의 계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6.9	36.9	37.1	37.2	37.2	36.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38.0	37.6	37.4	37.2	37.3	36.8
교육서비스업	33.2	32.7	32.7	31.4	31.6	31.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7.9	37.4	37.3	36.5	36.4	35.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6.7	36.3	35.9	34.5	35.1	34.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7.8	37.3	36.8	36.9	37.4	36.9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 각 연도.

○ 다음으로, 2022년 기준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근로시간의 변화 추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표 5〉와 〈표 6〉과 같음.

- 산업 대분류 단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으로 40.6시간이며,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40.2시간)이 다음으로 길고,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의 주당 근로시간은 39.4시간임.
- 한편,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30.9시간)이며,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31.3시간)과 숙박 및 음식점업(33.7시간)의 근로시간이 짧게 나타남.

〈표 6〉 제조업 중분류별 주당 근로일수 및 주 평균 근로시간 변화 추이

(단위 : 시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2/ (2017=100)
제조업 전체	41.4	40.8	40.5	39.7	40.0	39.4	(95.2)
식품 제조업	41.4	40.8	39.8	39.8	39.8	39.3	(94.9)
음료 제조업	41.4	40.2	39.4	39.2	38.8	39.4	(95.2)
담배 제조업	40.6	38.0	37.0	36.5	36.9	39.0	(96.1)
섬유제품 제조업	43.3	42.7	42.0	39.4	40.3	39.6	(91.5)
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38.8	38.6	38.4	36.1	38.2	38.1	(98.4)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40.2	39.1	38.8	37.0	38.9	38.7	(96.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1.4	41.8	41.3	41.0	41.5	40.5	(97.7)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43.4	42.7	42.5	43.3	42.6	41.6	(95.8)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	39.6	39.8	40.0	38.4	39.1	37.5	(94.7)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39.8	39.8	39.1	39.4	39.3	38.5	(96.8)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40.8	40.5	40.2	40.1	40.3	39.6	(96.9)
의료용물질·의약품 제조업	38.4	38.6	38.3	38.4	38.1	38.1	(99.0)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4.7	43.2	42.6	41.1	41.3	40.9	(91.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42.7	42.4	41.9	41.0	41.1	40.1	(93.9)

〈표 6〉의 계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2/ (2017=100)
1차 금속 제조업	42.8	42.4	41.5	40.7	41.2	40.6	(94.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2.3	41.2	40.5	40.0	40.4	39.7	(94.0)
전자·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39.7	39.2	39.7	39.8	39.5	38.7	(97.5)
의료·정밀·광학기·시계 제조업	39.4	38.8	38.2	38.1	38.1	37.2	(94.5)
전기장비 제조업	39.9	39.5	39.3	38.5	38.8	38.2	(95.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42.1	41.7	41.1	40.4	40.7	40.0	(95.1)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41.5	40.6	40.9	39.2	39.5	39.5	(95.3)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38.8	38.9	40.5	39.1	38.1	38.9	(100.2)
가구 제조업	40.7	40.1	39.8	40.6	40.0	38.6	(95.0)
기타제품 제조업	38.6	37.9	37.9	37.8	37.6	37.3	(96.6)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고용비중이 가장 높고, 근로시간의 제도적 변화에 가장 민감하다 할 수 있는 제조업에 한정하여 2022년 기준 제조업 중분류별 근로시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가장 긴 제조업(중분류)은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으로 41.6시간이며,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40.9시간), 1차 금속 제조업(40.6시간),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40.5시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제조업(중분류)은 의료·정밀·광학기·시계 제조업(37.2시간)이며, 다음으로 기타제품 제조업(37.3시간)과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37.5시간)의 근로시간이 짧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2022년 근로시간의 감소폭이 가장 큰 산업은 섬유제품 제조업과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 두 업종 모두 2017년 대비 주당 근로시간이 8.5% 감소했음.

〈표 7〉 상용직근로자 및 사업체의 근로시간대별 분포 추이

(단위: 천 명, 천 개, %)

	2022년 근로자 수		2022년 사업체 수	
	수	(%)	수	(%)
전체 상용근로자	14,022		1,594	
0~40시간 이하	9,317	(66.4)	1,073	(67.3)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	4,505	(32.1)	488	(30.6)
52시간 초과 64시간 이하	196	(1.4)	33	(2.1)
64시간 초과 69시간 이하	2.09	(0.0)	0.27	(0.0)
69시간 초과	2.30	(0.0)	0.48	(0.0)

〈표 7〉의 계속

	2022년 근로자 수		2022년 사업체 수	
제조업 상용근로자	3,486		276	
0~40시간 이하	1,884	(54.0)	179	(64.7)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	1,547	(44.4)	94	(34.1)
52시간 초과 64시간 이하	55	(1.6)	3	(1.2)
64시간 초과 69시간 이하	0.28	(0.0)	0.04	(0.0)
69시간 초과	0.13	(0.0)	0.12	(0.0)
비제조업 상용근로자	10,537		1,318	
0~40시간 이하	7,434	(70.5)	894	(67.8)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	2,958	(28.1)	394	(29.9)
52시간 초과 64시간 이하	141	(1.3)	30	(2.3)
64시간 초과 69시간 이하	1.81	(0.0)	0.23	(0.0)
69시간 초과	2.17	(0.0)	0.37	(0.0)

주 : 1)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실태부문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고용부문으로 계산한 근로자 수(2022년 상용근로자 15,778만 명)와는 일치하지 않음.

2) 전체 상용직 기준 주당 45.1시간 이하는 누적분포비율이 90% 이하, 47.9시간 이하는 누적분포비율이 95% 이하로 나타남.

제조업 상용직 기준 주당 44.4시간 이하는 누적분포비율이 90% 이하, 47.5시간 이하는 누적분포비율이 95% 이하로 나타남.

비제조업 상용직 기준 주당 45.4시간 이하는 누적분포비율이 90% 이하, 47.9시간 이하는 누적분포비율이 95% 이하로 나타남.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2년 원자료.

○ 마지막으로 상용직근로자 및 사업체의 근로시간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상용직 기준 근로자 1인당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2022년 기준으로 평균 33천 개(2.1%)이며, 52시간 초과 근무 근로자는 196천 명(1.4%)으로 나타났음. 이 중 제조업은 3천 개의 사업체, 근로자는 5.5만 명이 이에 해당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직의 비율은 2020년 당시 2.2%였으나 점차 축소되어 2021년에는 2.0%, 2022년에는 1.4%로 감소하였음.

○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상의 사업장 현황을 고려하여 긍정적 측면은 극대화하고 우려는 불식시키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필요할 것임. **KLI**

(김유빈 선임연구위원, 임용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